

# Media is “Message”

손봉호 (대표주관)

인간의 의식을 물웅덩이에 비유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웅덩이가 깨끗해지고 더러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웅덩이가 물 전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즉 의식의 내용과 성격은 전달되는 정보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로 결정된다. 물론 사람에게서는 취사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릴 수 있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취사선택도 이미 그 이전에 받아들인 정보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흰눈이 온 누리를 채워도 홀로 푸르게 남으리라” (백설 (白雪)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 (獨也靑靑) 하리라) 고 성삼문 (成三問)이 결심했지만 구체적인 현실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 살면 한국어를 하고 김치를 좋아하게 되며,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 개인도 쉽게 비도덕적이 된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사를 세 번이나 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거나 사실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정보를 얻었고 그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도 옳든 그르든 자신이 스스로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를 직접 얻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신문, 방송, 책 등 매체(미디어)를 통해서 얻는다. 그동안 미디어의 종류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

리의 의식 대부분은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채워져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회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는 오늘날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매체들 가운데도 인쇄매체와 달리 방송, 영화,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반추하거나 비판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기다가 맥루한 (Marshall MacLuhan)이 지적한 것처럼 영상매체는 말이나 글처럼 정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linear)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configuration) 우리를 훨씬 더 수동적이 되게 하고 따라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판적 사고는커녕 사고활동이 전혀 없어도 되도록 우리 두뇌를 게으르게 만든다. 신문이나 라디오 광고보다 TV 광고비가 월등하게 비싼 것은 광고효과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이란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수동적이고 그만큼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매체들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매체라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하므로 영입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의 질과 전달방식에 경제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정보

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흠을 낸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라 자체의 의도를 같이 전달하는 또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매체가 정보다” (Medium is the Message)란 맥루한의 말에 일리가 있다.

선진사회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실과 객관성에 대한 정열이 낮은 후진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약한 한국 매체들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광고수입을 늘리려 한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오락 프로는 황금시간에 방송하고 모든 국민과 특히 청소년들이 꼭 시청해야 할 좋은 교양 프로는 한밤중에 방송한다. 정보 소비자들의 질이 낮으면 질이 낮은 정보가 더 효과적이고, 질이 낮은 정보는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을 더욱 저급하게 만들어서 악순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방송의 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청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 동안 우리 언론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 풍무니 따라 다니느라 사회의 불법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시정함으로 생명 존중이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게을리했다. 세월호 참사에는 한국 언론매체도 정지권 못지않게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지적했다 (롬 10:17). 물론 성령의 역사, 창조적인 사고,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 등도 중요하고 그동안 형성한 비판능력도 작용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 가치관, 판단과 결정, 행동방식 등은 상당할 정도로 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더럽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며, 그 이후에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더러운 물을 오히려 환영하게 된다. 교회의 설교나 교제하는 성도들의 의식수준이 낮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매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매체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서 교계에는 건전한 기독교 매체들이 많아져야 한다. 가능한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철저히 공정하되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매체가 많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한 그런 매체를 많이 이용해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판단이 건전하고 행동이 신실해질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세계관동역회에서 이 <월드뷰>를 발간하고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더 많이 이용되었으면 한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알스텍(남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